

# '세계화'로서의 민주화 · 자유화 : 1987년 6월항쟁 이후 한국 출판문화의 전환



천정환(성균관대)

# 차례

1. 서 : 세계화, 자유화/민주화
2. '해적국가', 국제저작권조약에 가입하다
3. '가석방'된 출판과 사상의 자유 : 과도기의 출판탄압과 저항
4. 세계화로서의 민주화 : 신자유주의의 드넓은 세계로
5. 결



# I. 세계화, 자유화/민주화

- 세계화, 자유화/민주화의 관계에 대한 논의의 필요  
: '세계화'의 전개과정
- 1980~90년대 민주화'와 '세계화'의 긍정적인 길항과 상호작용
  - 전두환정권과 6월항쟁-올림픽
  - 노태우정권의 북방정책
  - 김영삼정권의 '신한국창조'
- 내적 동력 : 자유민주화에 대한 요청  
+ 한국인의 자기-오리엔탈리즘(서구의 시선)

- 1987년 전후 ‘세계화’의 과제

- 첫째, 세계화는 중진국 규모로 성장한 남한의 경제력과 ‘민주화’의 수준에 걸맞게 미국 중심의 환태평양-문화정치-체제 (transpacific cultural-politic system)의 새로운 하위 파트너가 되는 것.

- 둘째 그림으로써 가난하고 분단된 ‘예외적’ 국가가 아니라 ‘글로벌스탠더드 (global standard)’에 이르는 것. 특히 이것의 정치적 의미는 다대했다. 이를테면 크게는 6월항쟁을 군부가 1980년처럼 총칼로 진압하지 않거나 못한 것. 미시적으로는 ‘올림픽 시민 문화운동’이 주창한 바 개고기 따위를 안 먹는 것과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는 것 등등으로 현상했다.

- 셋째, 또 위 두 가지를 바탕으로 1980년대 말의 세계사의 격동을 수용하거나 동참하는 것. 그것은 소련과 동구 사회주의의 몰락으로 야기된 탈냉전·탈이데올로기화와 신자유주의화



## II : '해적국가' 국제저작권조약에 가입하다

- '국제저작권조약 가입'은 주로 서구와 일본의 출판물을 마구 베끼거나 복제 출판하고 아무런 허락 없이 번역하던 '해적'의 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 한국에서는 유수의 출판사들도 1950-80년대에 저작권료 지불을 하지 않거나 불법적 복제로 성장.(예컨대 M사) 국내에서의 저작권 개념도 흐릿
- 예컨대 1976년 한미 상공장관회의 공동성명 : "한국이 국제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
- 복사기가 대량 보급된 1980년대에 해적출판 확장 :  
1983년 프랑스의 일간지 <르 마탱> 보도 : 한국이 판권 없는 외국서적의 무단 번역과 복사출판에 있어서 세계 제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에는 해적출판업자를 막는 법이 없다... 한국에서는 연간 55,000여권 권의 외국서적이 불법 출판.. 대중은 "미국 독일 영국 등의 과학 기술과 의학 분야"의 책

# 「著作権조약加入」 거센 압력

【서울 4월 27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특보】 미국이 한국에 대해 저작권 조약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저작권 조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저작권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과의 무역에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저작권 조약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저작권 조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저작권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과의 무역에 장애가 되고 있다.



## 年사용료 60百 臺灣처럼 부분

다량외국서적용. 이런 책들이 국내 판매에 불이익을 지출하게 되면 국내 출판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하다.

한국은 아직 저작권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과의 무역에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저작권 조약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저작권 조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저작권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과의 무역에 장애가 되고 있다.

# 「海賊」汚名언제까지...

時論



## 著作權 부재상태 개탄

【서울 4월 27일 특파원 리정호 기자 특보】 한국은 아직 저작권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과의 무역에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저작권 조약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저작권 조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미국과의 무역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 저작권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이는 미국과의 무역에 장애가 되고 있다.

- 미국 등의 압력과 올림픽 개최국가가 더 이상 '해적' 이어서는 안 된다는 위신론이 시기상조론과 반제국주의론(?)을 극복

- 이 출판문화의 '근대화' '자유화' '세계화'는 한국 출판 사상 거대한 변동. 과정에서의 에피소드...

- 한승헌

“설사 계몽용 비매품이라 하더라도 남의 글의 무단전재는 표절이고, 만일 인용을 할 경우라도 그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면서 특유의 유머로 “아뭏든 저작권에 관해서 쓴 글을 표절당하고 나니 마치 도난방지기를 도난 당한 것 같은 기분이다”

: 한승헌, 「남의 글의 무단전재는 표절이다」, 출판저널, 20호, 1988.5.20

\* 제도적 변화 -

저작권법의 개정, 문공부 저작권과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출범. '신탁관리업'과 외국 저작물을 중개하는 '대리중개관리업'(에이전시)도 생겨남.

\* 출판의 '글로벌스탠더드'를 도입함으로써 근대적이며 자본주의적인 저작권 개념이 다시 구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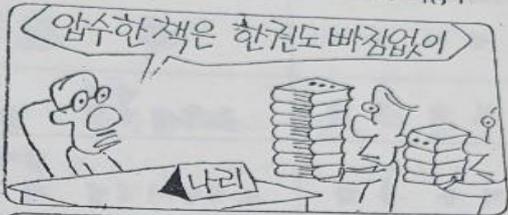
-> 한국 출판자본주의의 새 단계

- 저작권의 확립과 확장은 양가적인 의미를 띤다. 한편으로 그것은 창작자의 권리와 지적 산물에 대한 근대적 권리를 형성하고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한편 비자본주의적이거나 '지적 공유지'인 현상과 사물을 사적소유화하고 지대를 수취하는 경제적 행위로 만든다. 출판업을 위한 자본의 규모와 문화적 진입 문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 그리고 한국 출판이 세계문학이나 '세계체제'로 비로소 정식 등장한다는 것을 의미



나대로 (1384) 선생 이흥우



출판사 등록최소 처분장

출판사명칭 : 도서출판 창작과 비평사  
 등록 번호 : 10 - 102  
 등록년월일 : 1974. 4. 10  
 대표 자 : 김 운 수  
 소 책 지 :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 - 21  
 대표자주소 : 서울 성북구 정농동 685 -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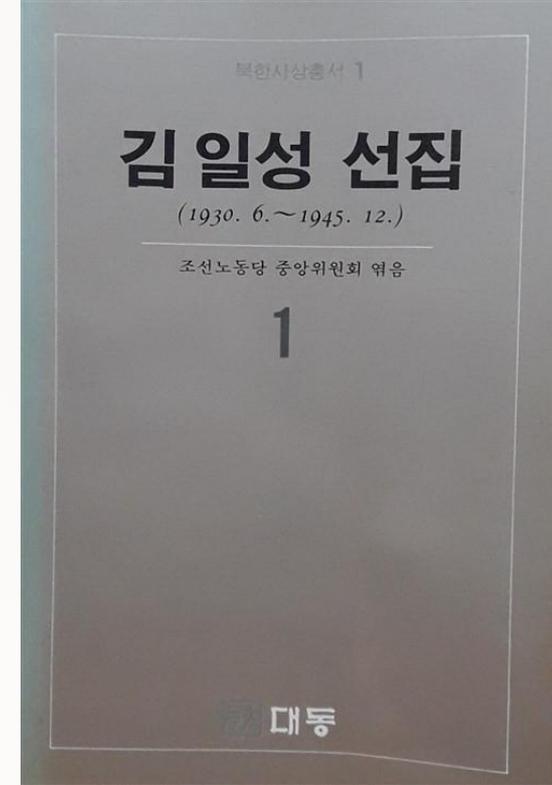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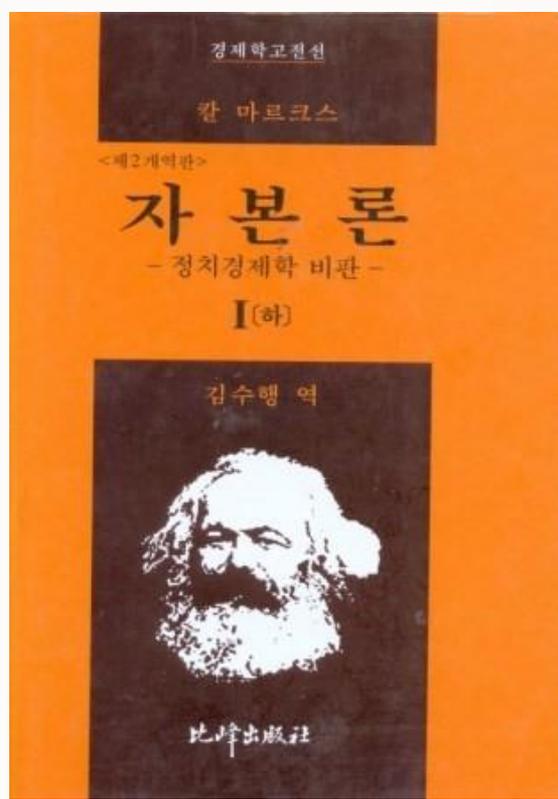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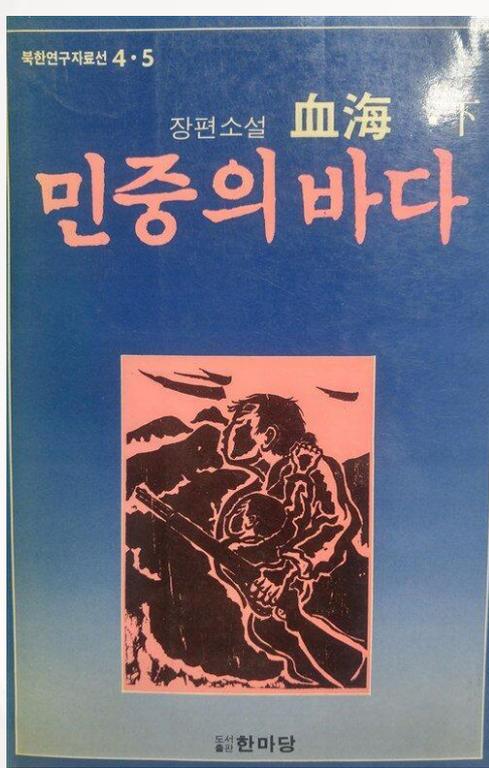
귀 출판사는 불법으로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으므로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이 관한 법률 제 5조의 2 제 4호에 의거 등록최소 합니다.

1985. 12. 9

서 발 부 비



동아일보 <나대로 선생> 1985, 외국인의 시선으로 전두환정권의 출판 검열을 풍자



## 냉전의 완화와 지속

마르크스 · 레닌주의와 주체사상에 결부된 출판 · 독서문화는 6월항쟁 이후  
검열체제가 느슨해지자 한껏 확장

- : 북한 이념 도서와 문학서적
- : 마르크스 레닌주의 관련 서적
- : 한국 현대사 관련 서적 등등

- 1987~89년의 인간과 책(=지식=지성)은 분명 탈분단(통일), 탈냉전 그리고 해방·민족통일을 향해 있었지만, 당시 국내외(의)정세나 한국사회 자체는 그것을 전면화할 힘은 갖고 있지 못했다. 다시 말해, 마치 6월항쟁의 귀결(군부정권의 약한 연장, 기만적 '보통사람의 시대')이 상징하듯 그 탈분단(통일)과 혁명(해방)은 부분적
- 1988~1994년 사이의 과도기에 5공 때보다 두 배 많은 88명의 출판인들이 감옥에 갔다. 재보수화 기도 과정에서 공안 세력이 걸핏하면 출판계를 괴심죄와 길들이기의 대상으로 삼아 크고 작은 출판 공안 사건이 계속...

- 1988년 남북한 자유왕래 및 북한과 서방, 남한과 사회주의권의 관계개선 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7.7선언" + 10월 7일 '대북한 경제개방 7개조치'를 발표.
- 노태우 정부의 북방외교 기간 동안 새로 수교한 나라는 45개국.
- 한국과 중국은 오랜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1992년 정식 외교 관계를 다시 수립. 북방 외교의 대미.

'가석방' 상태를 더 새로운 현실로 만든 힘은 국제정치  
의 변화와 거기 가장 빨리  
적응한 자본의 힘이였다.  
자본은 국내 상황과 무관하  
게 얽아진 국경을 민첩하게  
넘나들었다. 북한·중국을  
포함한 '사회주의권'은 갇혀  
잠겨있던 목마른 지적 샘일  
뿐 아니라, 대우그룹의 자  
본가 김우중이 부르짖었던  
대로 '세계경영'의 대상 "세  
계는 넓고 할일이 많은" 새  
로운 시장의 가능성이기도  
했다.



# 1989~1990년 출판계의 변화

냉전의 제한적 해제에 따른 교류는 규모가 아직은 작았지만 상호적인 것이기도 했다. 밀란 쿤데라나 친기스 아이트마토프 같은 유명한 "공산권" 작가의 책을 들여오는 일은 물론 활발하였다.

- 탈냉전과 1988년의 '봄' 을 타고 한국 출판물이 실질적으로 세계 출판시장에 처음 데뷔하는 상황.
- 유럽과 중국의 "공산권"에서 한국 문학 작품이 번역소 개되기 시작. (예) 1989년 모스크바 국제도서전, 베오그라드 국제도서전

“이런 참가에 의의가 있는 국제전 출품”이 “우리의 지식문화를 홍보하기는커녕 오히려 국제사회에 국내출판계의 빈약성만 드러내 보”인다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국제저작권협약가입과 올림픽개최, 세계 10대 출판국”의 위상에 맞게... (최구식, 「해외도서전 참가 활발 蘇소·유고에도 첫발·出版大國 꿈 키운다」 조선일보, 1989.02.09. )

- 1990년 제42회 프랑크푸르트 도서박람회
  - : 한국 출판계 참여와 도서 판매 계약 배증
  - : 인쇄업계도 첫 참여
- 1990년 프랑스 악트시드 한국문학총서 발간 시작
- 1993년 책의 해

# IV. 세계화로서의 민주화

## = 신자유주의의 드넓은 세계로

- 과도기 사회전환의 갈래길

- ‘민주화’의 의미

- ‘민주화’는 고도경제성장과 중산층의 성장, 자본의 해외 진출 등으로 인해 더 고도화된 한국 자본주의(토대)의 요구에 맞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상부구조)의 선택과 정비? 그리고 이 자유주의화는 1970년대 말부터 급격히 시작된 세계자본주의 축적체제의 재편으로서의 ‘신자유주의화’와 맞물리거나 복속...

# '투위 진실' 33년만에 빛 보

해위 "광고탄압·기자해직 中情 직접개입... 회사 동조"

당시 동아일  
기자 강제 해  
원 국가정보  
: 사실이 확

거사 장리위  
: 29일 "동  
은 중앙정보  
한 상대한 인  
실규명 결과

는 동아일보  
에게 사과하  
유수로 노박  
피해 회복을  
결한 조치를  
결정했다.  
년 중앙정보  
사와 계약한

중앙정보부  
아상송·여성  
등에 내고  
광고를 주지  
했다. 또 소액  
[보부·경찰·  
중단 압력을

저항하는 기  
문사를 통해  
의도에서 시  
는 설명했다.  
정보부의 압  
7대 5월까지  
임하고 84명



"오늘부터 1인시위" 동아투위 활동의 위풍당당(가운데) 등 해직기자들이 진실·화해위 결성 발표 이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집회  
의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을 무기정직 처분했다. 당시 중앙정  
보부 담당관은 진실화해위 조사에  
서 "광고재개를 위해 동아일보사에  
서 사과성명을 내고 편집국장 등 주  
요 간부는 사전 중앙정보부와 반대  
시 협의하는 조건을 제시했고 신문  
사는 이를 수용했다"고 진술했다.

진실·화해위는 "동아일보사 결  
영진은 결과적으로 유신정권의 언  
론탄압에 동조했으며 언론의 자유,  
언론인들의 생존권과 명예를 침해  
한 책임을 면키 어렵다"면서 "피해  
언론인들에게 사과하고 피해자들  
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등 적  
절한 화해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다"고 밝혔다.  
동아투위 활동의 위풍당당(가운데) 등 해직기자들이 진실·화해위 결성 발표 이후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집회  
의에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동아투위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와 동아일보에 대해 직접한 사  
과와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경 위  
원장은 "다음달 17일까지 1인 시위  
를 통해 사과와 화해 조치를 촉구하  
겠다"며 "오기가 관철되지 않으면  
민사소송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  
혔다. **출판수기자**



동아투위 활동중 체포되는 이부영  
진 의원.

심에 맞  
아일보  
진실현  
광고탄  
사는 아  
한 가  
등 100  
이들은  
위원회  
고 언론

- 출판인들의 변화
- : 1970-80년대 한국 지식인-출판인들
- 해직기자, 교수, 학생운동가

: '운동권'에서 '주류'로

- 출판사의 변화
- : 운동에서 사업으로?

# 안기부 황석영 북한방문기 게재 관련

안기부는 23일 법원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주간 이시영(39) 대치동 은마아파트 대한 수색을 벌인 <한 자위단 활동하는 처녀> 최근 김필중 씨에 대해(6월 17일) 이상기, 박국한 <광주 테이프 등을 압수했

씨와 자주 연락하며 황씨의 북한 방문기 '사람이 살고 있었네' 원고 제3회분을 자신이 주간으로 있는 <창비>에 실기로 교섭, 지난달 초 마포구 용강동 이 출판사 사무실에서 황씨의 부인 김명수(35)씨로부터 원고를 전달받아 이달 중순께 발간된 <창비> 겨울

호에 실어 국가보안법을 위반(이적표현을 제작·판매)한 혐의이다. 이씨는 이날 아침 출근한 뒤 돌아오지 않아 연행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황씨의 북한방문기는 <신동아> 6·7월호에 1·2회가 실린 바 있다.

## 민가협 회원 40명 농성

문익환 목사의 부인 박용길 장로 등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회원 40여명은 23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전민련 사무실에서 국가보안법철폐 및 양심수 석방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

서 "민정당과 야당이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등을 그대로 둔 채 5공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정치판의 놀음 정도로 전락시키고 있다"면서 △국가보안법 등 악법 철폐 △안기부 등 폭압기구의 해체 △양심수 즉각석방 등 6개항을 요구했다.

안기부는 서울지검 검사 4명을 동원하여 30분 동안 안기부에 따라 9월말까지 황석영(45)



안 보겠다"...신경숙 두둔 창비, 홈페이지 비판글 쇠도

도시	저자	계간 장각라비명	창비아린이	커뮤니티	문학상 및 작품공모	이벤트
안녕을 잘관심나	문종자	2014.9.17	독자통신			
	이경희	2015.6.10	< 자유 게시판 >			
	김성문	2015.6.10	장미 뉴스			
	서정숙	2015.6.10	80년 서비스 기차 및 마케팅동료 분야 직원 채용 공고			
공문서있네요	손혜경	2015.6.10	*창작대비용* 창간 50주년 기념 창비아광문 소설상 특별 공모			
이영을 보고 싶장이 너무 곱니다.	이지연	2015.6.10	창비교육 필수 분야 교원 연수 기관 지정 승인			
	김연희	2015.6.10	*고교엔 나의 삶·애용 일기* 5월의 일과			
	이연지	2015.6.10	NEWSIS			
	이민석	2015.6.10	나 저자란의 15449747			
	이희경	2015.6.10				



새로운 난청 해결 방법  
기 있습니다.

BOOKS IN 이슈

- 한국의 지성계와 출판계는 제3세계에 대해 관심이 많았으며 한국을 제3세계 국가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90년대의 담론에서 '제3세계'라는 말은 한국의 계간지나 인문사회과학 서적에서 거의 완전히 사라진다.
- 이 1980년대 말 출판문화의 재구성은 한국(또는 한국적인 것 Korean-ness)의 '지성'이 주변부에서 반주변부로, 그리고 다시 다른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과정의 초기 단계
- 1990년대 세계화의 효과

:1995년 광복50주년 첫 서울국제도서전 (구, 서울도서전)

: 1996년 한국문학번역금고(현 한국문학번역원) 설립

정부가 "10년간 국고에서 매년 10억원씩 1백억원을 한국 문학 세계화 지원금고에 적립".

감사합니다